

양보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유형과 변천

-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민 희

#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유형과 변천

-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

양보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민 희

# 인 준 서

김민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지도는 지도를 제작하는 시대의 자연 환경 뿐 만 아니라 인간이 그것과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인문 환경을 일정한 축척과 기호, 그리고 방위 등을 사용해 나타내는 축소판이다. 또 지도는 단순히 그 사회의 표면만을 축소해 나타낸 것일 뿐 만 아니라 지도상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한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세계관까지도 담아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도를 ‘본다’고 하지 않고 ‘읽는다’고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도에 녹아든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읽어 내기 위해서는 지도에 나타난 다양한 요소들을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를 대상으로 고지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 지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제작 연대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서양 고지도의 제작 연대에 따라 동해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서양 고지도를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제작 연대나 소장처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많은 수의 지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에 약 4천 여 점의 서양 고지도를 수집한 뒤 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의 고지도 가운데 900점 선정해 이를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작연대가 16세기인 서양의 고지도는 33점이었다. 그 가운데 동해에 지명을 표기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동양해’ (Ocean Oriental)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1점, ‘중국해’ (Mare Cin)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3점이었다. ‘동양해’ (Ocean Oriental)의 대표적인 지도는 <ROYAUME DU IAPON> (1600)

이며, ‘중국해’ (Mare Cin)의 대표적인 지도는 〈Indiae Orientalis Insvlarvmqve Adiacientivm Typvs〉 (1570)이다.

제작연대가 17세기 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60점(식별 불가인 지도 4점 제외)이었다. 여전히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은 지도가 37점으로 가장 많지만 ‘동양해’의 세부 개념으로 ‘중국양’ (The Chinian Ocean) 또는 ‘중국해’ (Mer de la Chine)라고 표기한 지도가 11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동해를 태평양 또는 태평양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가 3점이었으며 요도쿠스 혼디우스(Jodocus Hondius)가 1623년에 제작한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에 나타난 ‘MAR DEL ZUR’가 대표적이다.

제작연대가 17세기 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139점(식별 불가인 7점 제외)으로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은 지도가 82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시기 눈에 띄는 점은 얀소니우스가 1658년 제작한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NSUILARUM ADJACENTIUM〉와 같이 ‘중국해’를 표기한 지도가 20점이었다. 이는 ‘동양’이라는 막연한 표기에서 ‘중국양’ 또는 ‘중국해’ 등으로 구체적인 지명 표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프랑스의 타베르니에 (Jean-Baptiste Tavernier)가 1679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인 〈Carte Des Isles Du Japon〉에서와 같이 대한해협에 ‘한국해(Mer de Coreer)’가 등장하였으며 존 세넥스(John Senex)가 1700년에 제작한 〈ASIA〉에는 ‘동해’ (The Eastern)와 ‘한국해’ (Corea Sea)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총 8점이었다.

제작연대가 18세기 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171점(식별 불가인 5점 제외)으로 그 가운데 72점이 동해에 한국해 표기를 하였다. 한국해 표기 중에서도 ‘Mer de Corée’가 38점으로 G. De Lisle가 1705년에 제작한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을 기점으로 18세기에 대표적인 동해 지명 표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작연대가 18세기 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280점으로 그 가운데 한국해 표기 유형이 160점으로 나타났다. S. Janvier는 1760년에 제작한 <L'Asie divisée en ses principaux états> 에 'Mer de Corée' 로, J. Gibson은 1753년에 제작한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 에서 'Sea of Corea' 로 표기하였다.

제작연대가 19세기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227점이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동해 지명 표기가 4점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라페루즈 탐사 이후 동해가 일본해 표기로 바뀌었고, 동해는 지금의 동중국해 표기로 대체되는 경향도 보인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 등과 같은 연구가 특정 국가에 소재한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적으면 100여점에서 많아도 수백여점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한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제작한 서양 고지도 900점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 연대라는 분석 틀 하나만을 가지고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는 것에서 그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향후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것에 의해 서양 고지도 속에서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나 지명 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 방법 .....	4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7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	7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	9
1. 서양의 고지도에 관한 연구 .....	9
2. 지리학에서의 동해에 관한 연구 .....	11
제3절 선행연구와의 관계 및 연구 분석틀 .....	16
제3장 16세기 고지도상의 동해 지명 .....	18
제4장 17세기 고지도상의 동해 지명 .....	22
제1절 17세기 전반 .....	22
제2절 17세기 후반 .....	29

제5장 18세기 고지도상의 동해 지명 .....	38
제1절 18세기 전반 .....	38
제2절 18세기 후반 .....	46
제6장 19세기 고지도상의 동해 지명 .....	55
제7장 종합 분석 .....	61
제8장 결론 .....	64
참고문헌 .....	68
ABSTRACT .....	71

## 표 목 차

표 1. 선행 연구 내용 고찰 .....	15
표 2. 제작 연도에 따른 16세기 지도 수 .....	18
표 3. 동양 또는 중국해로 표기한 16세기 지도 .....	20
표 4. 17세기 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의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	22
표 5. 17세기 전반 지도 중 태평양 계열 표기 지도 .....	24
표 6. 17세기 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의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	29
표 7. 17세기 후반 제작한 서양 고지도 중 한국해 표기 유형 .....	37
표 8. 18세기 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	38
표 9. 18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	46
표 10. 18세기 후반 제작한 서양 고지도 중 ‘Sea of Korea’ 표기 지도 .....	49
표 11. 18세기 후반 제작한 서양 고지도 중 ‘GULF OF COREA’ 표기 지도 .....	52
표 12. 19세기 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	58
표 13. 19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	58

## 그림 목 차

그림 1.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 .....	5
그림 2. 파인드코리아 보유 지도에 대한 상세 설명 .....	6
그림 3. 연구흐름도 .....	6
그림 4. 연구분석틀 .....	17
그림 5. <ROYAUME DU IAPON> (1600) .....	21
그림 6. <Indiae Orientalis Insularumque Adiacentium Typus> (1570) .....	21
그림 7. <The Kingdom of China newly augmented by I.S> (1626) .....	23
그림 8. <Asie> (1650) .....	23
그림 9.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 (1623) .....	26
그림 10. <TARTARIA> (1625) .....	26
그림 11. <A newe mape of Tartary> (1626) .....	26
그림 12.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2) .....	27
그림 13. <Carta Particolare della Grande Isola del' Giappone e di Iezo con il Regno di Corai et altre Isole in torno> (1646) .....	28
그림 14.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 INSULARUM ADJACENTIUM> (1679) .....	30
그림 15. <Great Tartary The Isle of Iapon> (1682) .....	31
그림 16. <A Generall Map of Asia> (1660) .....	32
그림 17. <Les Isles Du Iapon> (1683) .....	32
그림 18. <Carte Des Isles Du Japon> (1679) .....	33

그림 19.	〈Particuliere reis kaart van Japan〉 (1700)	34
그림 20.	〈A New Map of Present ASIA〉 (1700)	35
그림 21.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1703)	39
그림 22.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1705)	41
그림 23.	〈Royaume de Corée〉 (1737)	41
그림 24.	〈L'Empire de LA CHIN〉 (1748)	41
그림 25.	〈Asia〉 (1725)	42
그림 26.	〈A New and Correct MAP of the WHOLE WORLD〉 (1719)	42
그림 27.	〈Imperium Japonicum Per Sexaginta Et Sex Regiones〉 (1740)	44
그림 28.	〈L' Empire du Japon〉 (1750)	45
그림 29.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 (1760)	47
그림 30.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 (1753)	48
그림 31.	〈Present Asia〉 (1783)	49
그림 32.	〈Asia, from the Latest Authorities〉 (1790)	50
그림 33.	〈Carte Generale des Decouvertes〉 (1787)	56
그림 34.	〈China&Japan〉 (1870)	59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사회적 특성은 도구를 제작하고 그를 통해 끝없는 생산 활동을 한다. 인류에게 있어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불과 언어, 문자와 같은 도구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생산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문자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자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고 또 다른 이와 교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사고를 나타내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자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많은 그림 등이 등장하고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정한 약속에 따라 기호, 문자, 색채를 사용해 그림의 형태로 줄여서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 지도이다.<sup>2)</sup>

이 같은 지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지도는 ‘해석해야하는’ 것이다. 그 지도를 해석한다는 것은 지도의 초점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은 왜 크게 그려져 있는가, 왜 잘못 그려져 있는가, 지도를 왜 그렸는가 등을 파악해 지도 제작의 배경과 지도 제작의

1) 양보경, 2004, “과학과 예술의 만남, 한국의 옛지도 읽기”, 측량, 대한측량협회, p. 42.

2) 양보경, 2004, 위의 논문, p. 34.

사상적·정신적 배경을 살피고, 지도 제작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일<sup>3)</sup>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도 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명이다.

지명은 어느 하나의 장소에 붙이는 이름이라는 정의로는 한정지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와 힘을 지니고 있다. 지명은 인간이 장소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지리학적인 언어<sup>4)</sup>로 장소를 다른 곳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장소의 지리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sup>5)</sup>이다. 더구나 지명은 장소 뿐 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산, 강, 그리고 바다 등에도 붙인다. 이는 그 자연물과 더불어 생활해 온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문화의식에 적합한 명칭을 자연물에 붙이게 된데서 비롯된다.<sup>6)</sup> 지명이 인간과 바다와 같은 자연물과 상호작용하며 살아온 인간이 만들어 낸 하나의 언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명 연구는 단순히 지도 위에 표현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명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동해’ 지명<sup>7)</sup>이다. ‘동해’ 지명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1992년 UN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학계와 시민 단체들이 국제사회에 ‘일본해’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동해’ 지명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해 지명의 타당성과 정당성과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동해 지명에 대한 지리학 세미나”가 개최되어 당면 과제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접근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후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sup>8)</sup> 하지만 국내의

3) 양보경, 2004, 앞의 논문, p. 47.

4) 김기혁·임종욱, 2008, “지리학에서 지명연구 동향”,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푸른길, p. 15.

5) 김기혁·임종욱, 2008, 위의 논문, p. 15.

6)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東海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 157.

7) 김기혁·임종욱, 2008, 위의 논문, p. 26.

8) 김기혁·임종욱, 2008, 위의 논문, p. 26.

이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한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는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sup>9)</sup>

본 연구는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를 대상으로 고지도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 ‘동해’ 관련 지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제작 연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서양 고지도의 제작 연대에 따라 동해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9) 이와 같이 온라인에 나타나는 동해와 일본해 표기 등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최미선, 2008, “동해 지명의 온라인 표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제작 연대별로 고찰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그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특정 제작 연대, 국가, 제작자 등을 한정시키지 않으면서 비교적 많은 숫자의 서양 고지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양 고지도 약 4천 여 점을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인드코리아 (<http://www.findcorea.co.kr/>)의 협조를 얻어 연구 대상 지도를 선정하였다.<sup>10)</sup>

단, 파인드코리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지도 가운데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도는 제작 연대를 1500년대부터 1900년대로 한정<sup>11)</sup>하였다. 또한 동해 관련 지명 표기 등의 식별이 가능한 지도 등, 연구 대상 지도의 이미지 상태가 양호한 것 등으로 한정시켜 900점을 선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서양의 고지도에 대한 선행 연구와 지리학 분야에서의 동해 지명에 대자 선행 연구를 각각 고찰하였다.

둘째, 고지도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

---

10) 파인드 코리아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양 고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태진 사장님과 그 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11)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파인드코리아 제공 서양 고지도 가운데 제작 시기가 1900년대 이후 인 것은 12점으로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에 대해 고찰하기에는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제작연대를 1900년까지로 한정하다.

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셋째,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 가운데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지도에 대한 세부 항목인 지도 제목, 제작연대, 제작자, 제작국가, 크기 뿐 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묘사, 국호 표기 등의 지리적 인식 등을 Microsoft Excel에 입력하여 분류하였다.

넷째, 분석 대상 지도를 제작 연대에 따라 분류한 뒤 지도의 세부 항목을 기초로 해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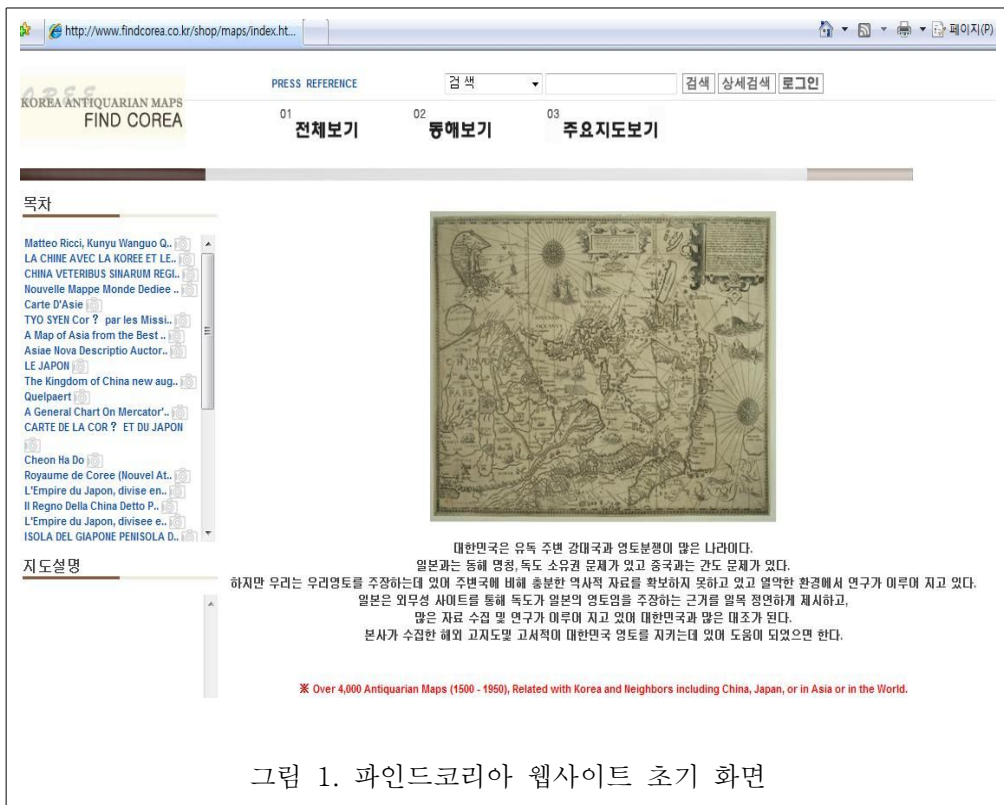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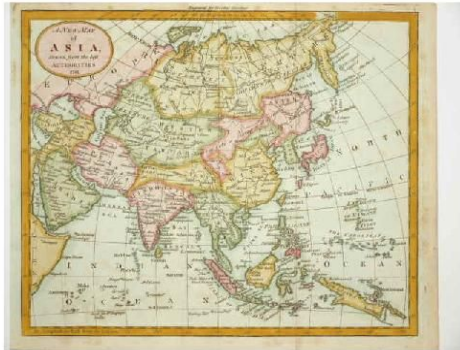


그림 1.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초기 화면

A New Map of Asia, Drawn from the Best Authorities



확대보기

상세설명

Price	: 60 UK
Region	: ASIA MAP
Year	: 1791 (Printed on tide map)
Cartographer	: Brookes Gazetteer
Country	:
Publisher	:
Holding	: Philip Sharpe
Product Code	: LD09-1371
Size	:
Color	: Hand Colored
Collection	: IMCoS Members Stock List-LD09
Source	:
East Sea	: Gulf of Korea
Dokdo & Ulungdo	: N/A
Jejudo	: N/A
Kando	: NO
Name of Korea	: COREA
Land type of Korea	: Peninsula

그림 2. 파인드코리아 보유 지도에 대한 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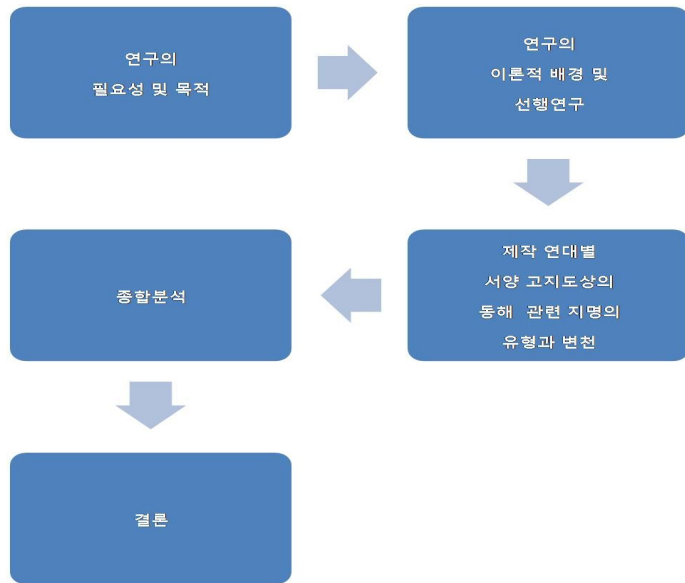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흐름도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서양의 고지도와 동해 지명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세우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고지도에 대한 연구, 또 지도에 나타나는 지명 연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제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지도는 지역 및 공간 현상의 투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등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각인된 그림이다.<sup>12)</sup> 즉, 지도는 그 지도를 제작할 당시의 자연 환경과 또 그것과 상호 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 낸 다양한 인문 환경을 기호와 축척, 방위 등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지도는 동시대의 자연·인문 환경 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대의 그것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창(窓)’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문적이고 학문적 연구는 물론, 지역의 역사적 제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등 일반적인 분야에서도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자연, 지명, 인문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고지도는 필수적 자료이다.<sup>13)</sup>

이에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유형과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동해 바다에 올바른, 그리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해 지명이 지닌 역사성 즉 역사적 근거와 지명의 실체성, 지명의 정당성 등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한 작업<sup>14)</sup>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제기 당사국인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수십 년

12)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p. 263.

13) 양보경, 1997, 위 논문, p. 264.

14)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

동안 사용되어 온 바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동해’ 지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일본해’ 지명의 부적절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 바다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sup>15)</sup>

---

리학회, p. 90.

15) 양보경, 2004, 앞의 논문, p. 90.

##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의 유형과 변천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하나는 서양의 고지도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학 분야에서의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이다. 그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 서양 고지도에 관한 연구

서양 고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로 노정식(1975)<sup>16)</sup>은 서양의 고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양의 지도 제작자들이 한반도를 지도에 어떻게 나타내고 한반도를 누락한 지도,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로 표현한 지도, 섬과 같이 부정확한 지도 등이 어떠한 지도이며 그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서정철(1981)<sup>17)</sup>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서양의 고지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선행해야 할 작업은 시대구분이며 그 시기를 중세, 대항해시대, 계몽주의 시대로 구분한 뒤 시기별 서양의 문헌 및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한국 관련 기록과 그 지리적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보완 및 심화시켜 1991년 단행본인 『서양 고지도와 한국』<sup>18)</sup>을 출간하였다.

16) 노정식, 1975, “서양지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윤곽변천에 관한 연구”, 대구교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대구교육대학교, pp. 233~246.

17) 서정철, 1981, “역사적으로 본 서구고지도에 나타난 한국”, 지리학 제24호, 대한지리학회, pp. 39~53. 이 외에도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도 하였으며 대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정철, 1995,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하여”,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논문발표 I. (사)동해연구회, pp. 1~18.

\_\_\_\_\_, 1997, “고지도의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동해지명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I, (사)동해연구회, pp. 36~47.

\_\_\_\_\_, 2001,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한국해 표기문제”, 제7회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 (사)동해연구회, pp. 1~40.

\_\_\_\_\_, 2004, “고지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 ‘동해’ 표기의 문제”, 동해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사)동해연구회, pp. 40~58.

이상태(2003)<sup>19)</sup>는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 가운데 미국 USC대학 소장 163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4점, 개인 소장 35점 등 총 212점의 지도를 대상으로 고지도의 제작 연대·제작 국가·사용 언어에 따라 한국 및 일본의 국호 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수를 파악하여 한국 및 일본의 국호 표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오일환·김기수(2004)<sup>20)</sup>는 서양 고지도의 발달 과정에서 13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모습이 중국대륙의 일부로 나타났으며 17세기 초까지 동그런 섬이나 긴 섬, 또는 사다리꼴의 섬으로 그려졌다고 하였다. 그러다 18세기 중엽 당빌의 지도를 계기로 현재와 같은 반도의 형태로 서양 고지도상에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 같이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형태 변화가 제주도 명칭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같은 변화는 풍마(Fungma), 켈파트(Quelpaert), 제주(Ki-tcheou)와 같은 도시명으로 표기된 지도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호와 모습들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오일환(2009)<sup>21)</sup>은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형태가 섬 또는 반도인지, 즉 지리적 형태 인식과 그 유형을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특히 그 지리적인 형태를 각 지도 제작자에 따라 계열화 시킨 것이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리학 외에서도 김상근(2004)<sup>22)</sup>은 서양의 세계지도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또 중국 등에서 활동한 선교사

18)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19) 이상태, 2003,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우리나라 국호”, 역사비평 통권 65호, 역사문제연구소, pp. 372~391.

20)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형태와 명칭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113~122.

21) 오일환, 2009,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지리인식과 그 양상”, 세계지도 속의 동아시아(고지도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경기도·경희대학교·동북아역사재단, pp. 157~183.

22) 김상근, 2004, 세계지도의 역사와 한반도의 발견, 살림.

들에 의해 서양에서 한국의 지리적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 2. 지리학에서의 동해에 관한 연구

동해 지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였다.<sup>23)</sup> 이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시정을 요구하면서부터이다. 대한지리학회에서 같은 해 11월에 ‘동해’ 지명에 대한 지리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모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것이 국내에서는 학계가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계기였다.<sup>24)</sup>

이찬(1992)<sup>25)</sup>은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동해’가 가장 먼저 나타난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라고 하였다. 이 지도에는 동해, 남해, 서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지명은 바다 부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동해를 제사 드리는 장소에 기입하고 있다. 즉 동해신을 제사하는 강원도에 동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 대한 명칭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록한 지도로 《서북계도(西北界圖)》(1712~1776)를 들 수 있으며 이 지도에는 동해라고 뚜렷하게 나타나있다. 이와 같이 동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르게 된 것은 한역 서양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지도는 바로 알레니(Giulio Aleni, 1592~1649)의 〈만국전도〉를 1770년대에 필사한 〈천하도지도〉이다. 이 지도는 동해와 황해를 각각 소동해와 소서로 표기하고 있다. 알레

23) 이에 대해 서정철(1981)은 “동해에 관한 불어 표기가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 또는 한국해로 되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인연이 되어 필자는 전공과 다른 지도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해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1978년 초 한국일보에 발표한 일련의 기사는 그에 대한 일차적인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24) 이기석, 2008, “‘동해(東海)’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푸른길, p. 308.

25) 이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263~267.

니의 〈만국전도〉에 동해와 서해가 겹쳐되어 있어서 동해와 서해의 명칭을 보충한 것이다.

이기석(1992)<sup>26)</sup>은 고대 그리스인의 세계관, 중세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각각의 세계관, 또 발견시대 지도상에 나타나는 동해 지명과 그러한 지명이 갖는 의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이 같은 연구 과정 가운데 아시아 전도나 한국과 일본만을 그린 부분도에서는 동해의 명칭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상복(1992)<sup>27)</sup>은 우리가 부르는 동해는 육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이며, 국지성을 지녀 전체성을 갖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동해에 적합한 지명으로는 서양인들이 고지도상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Orient Sea’ 라고 주장하였다.

임덕순(1992)<sup>28)</sup>은 정치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동해 지명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영해-대륙붕 관련 측면, 영역적 상징 관련 측면, 그리고 지리적(地利的)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게 동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정치적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동해 지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노정식(1993)<sup>29)</sup>은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에 대한 고찰 뿐만 아니라 일본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의 명칭에 대해서 약 70여점의 지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양보경(2004)<sup>30)</sup>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영남

26)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278~283.

27)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272~277.

28)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268~271.

29) 노정식, 1993, “고지도상에 나타난 동해(일본해) 지명 연구”, 논문집 제28집, 대구교육대학교, pp. 259~279.

30)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89~111.

대학교 박물관 등 우리나라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시대 고지도 가운데 그 제작 연대가 17세기에서 1910년인 것을 대상으로 동해 지명 유형을 ‘대해(大海)’ 표기 지도, 바다에 ‘동해(東海)’ 라고 표기한 지도, 육지에 ‘동해(東海)’ 라고 표기한 지도, ‘대한해(大韓海)’ 표기 지도, ‘일본해(日本海)’ 표기 지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상태(2004)<sup>31)</sup>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표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USC 대학의 146점,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 127점, 서울역사박물관 82점, 개인 소장 52점을 대상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로 제작연대를 구분하여 동해 및 일본해를 표기하고 있는 지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오일환(2004)<sup>32)</sup>은 한반도에 대한 지리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17세기 초기까지 중국해에 속하던 ‘동해’ 지명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Ocean Oriental, Mer Oriental, Petie mer Oriental 등 동양으로 나타나다가 18세기부터는 Mer de Coree, Gulf of Corea, Sea of Corea, Sea of Korea, Korean Sea 등 나라이름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는 서양세력의 북방항로 개척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확장으로 Sea of Japan, Gulf of Japan, Mer de Japan 등의 일본해로 점차 바뀌어 고착화되었다고 하였다.

지리학 분야 외에서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신(1997)<sup>33)</sup>은 단행본인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동해와 수로기구』, 『동해연구』 등 동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

31)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東海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157~164.

32) 오일환, 2004, “서양고지도의 ‘동해(東海, Sea of korea)’ 표기와 유형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167~186.

33) 단행본 외에 그의 대표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신, 1998, 동해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해 지명의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사) 동해연구회, pp. 145~164.

\_\_\_\_\_, 2001, 국제수로기구와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 제7회 동해지명과 바다 명칭에 대한 국제 학술세미나, (사)동해연구회, pp. 133~162.

\_\_\_\_\_, 2004, 국제수로기구와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 동해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사) 동해연구회, pp. 82~90.

한편, 국내에서 이뤄지는 동해 지명 연구 활동에 있어 주축인 단체는 199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동해연구회다. 동해연구회는 설립 이후, 1995년에는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워크숍”과 “동해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이 같이 동해연구회는 동해 지명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국내 지명 전문가와 세계 각국의 지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명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뿐만 아니라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장(場)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선행 연구 내용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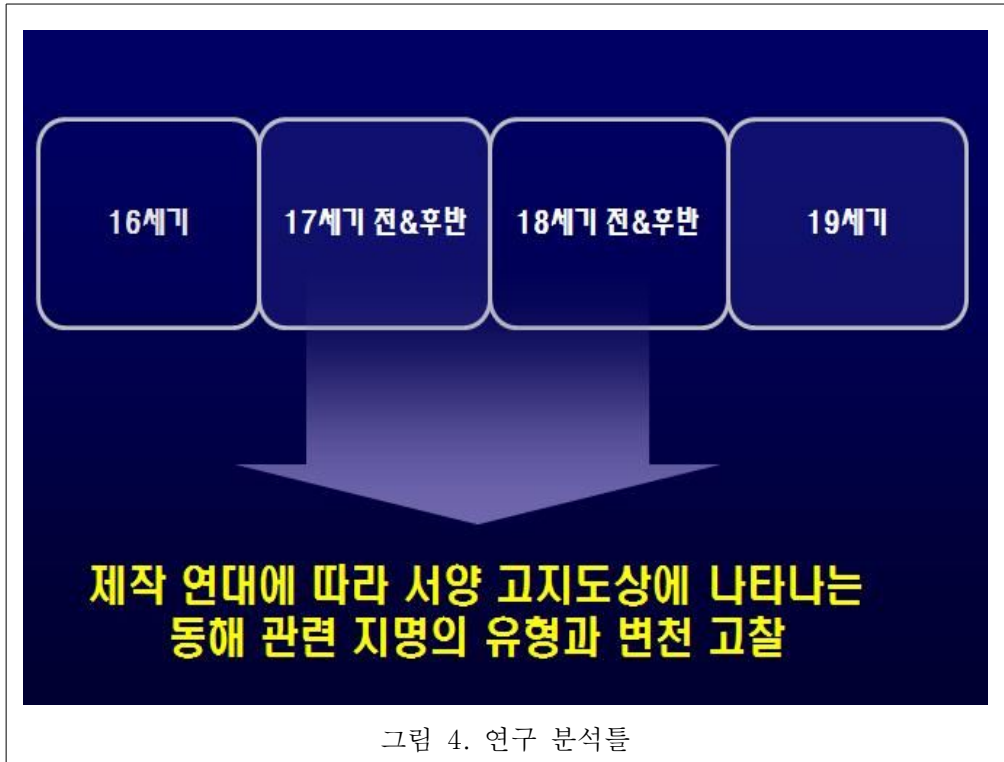
분류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서양 고지도에 관한 연구	노정식	1975	- 서양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연구
	서정철	1981	- 서양 고지도 연구에 있어서 시대구분의 중요성 언급 - 서양 문헌 및 고지도에 나타난 한국 관련 기록 및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 고찰
	이상태	2003	-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한국 및 일본의 국호 표기 연구
	오일환·김기수	2004	-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한국의 형태 변화와 제주도 명칭 변화의 관련성 주장
	오일환	2009	-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한국의 형태를 지리적 인식에 따라 제작 시기에 따라 고찰
	김상근	2004	- 서양 고지도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한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에서 선교사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
지리학에서의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	이찬	1992	- 한국의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
	이기석	1992	- 고대 그리스인, 중세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세계관, 발견시대 지도상에 나타난 동해 지명과 그 의의에 대해 연구
	한상복	1992	- '동해(East Sea)' 지명은 일반적·국지성을 가진다고 지적
	임덕순	1992	- 정치지리학에서 동해 지명 문제를 영해-대륙붕, 영영역적 상징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
	노정식	1993	- 서양 고지도 및 일본 고지도 등 약 70여점의 지도를 대상으로 동해 지명에 대해 연구
	양보경	2004	-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시대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을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봄
	이상태	2004	- 미국의 USC,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표기 연구
	오일환	2004	-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지명 연구
김신	1997	-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등 동해에 관한 여러 단행본 출간	

### 제3절 선행연구와의 관계 및 연구 분석틀

앞 절에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 본 것과 같이 국내에서 고지도 특히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도의 소장처가 특정 국가의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분석한 지도의 수도 적게는 수 십 점에서 최대 400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국가와 제작자, 그리고 특정 제작 연대나 지도 소장처 등으로 분석 대상 지도를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수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그 변천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로써 제작 연대를 삼았다. 제작 연대에 따른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서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경우 분석한 지도의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제작 연대에 따른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그 변천을 고찰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 즉, 분석하고자 한 지도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특정 제작 연대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제작 국가, 제작자, 또 제작 연대 등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많은 수의 서양 고지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기에 동해에 어떠한 지명 표기가 이뤄졌는지, 또 왜 그러한 동해 관련 지명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동해 관련 지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시계열적 분석과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같은 본 연구의 연구 분석틀을 정리하면 다음(그림 4)과 같다.



## 제3장 16세기 서양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과인드코리아 웹사이트 상의 서양 고지도 중 분석 대상으로 삼은 900점의 지도 가운데 제작 연대가 16세기<sup>34)</sup>인 지도는 총 33점이다. 그 제작 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작 연도에 따른 16세기 지도 수

제작 연도(년)	지도 수(점)
1522	1
1570	3
1572	1
1573	1
1584	3
1588	1
1589	1
1590	1
1593	1
1595	8
1596	2
1597	1
1600	7
제작 연도 불분명	2
<b>총</b>	<b>33</b>

\* 제작 연도가 불분명한 지도 2점은 분석에서 제외함.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지도 33점의 제작 연대를 살펴보면 1600년이 7점, 1595년이 8점으로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에 근거해 16세기 서양 고지도에서 ‘동해’ 지명이 해당 제작연대에 절대적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세기에 제작한 지도 33점의 동해

34) 본 연구에서 제작 연대를 분류할 때 16세기는 지도의 제작연도가 1501~1600년인 지도를 말한다.

표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류하였다.

제작 연대가 16세기에 해당하는 지도 가운데 동해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 지도는 27점이다. 이는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16세기 지도 6점을 제외한 지도, 이 가운데 제작연대가 불분명한 지도 2점을 제외하면 16세기에 제작한 분석 대상 지도 4점 전부에 동해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서양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라는 바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지도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동해’라는 바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반도국가인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 역시 부족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작 연대가 16세기에 해당하는 지도 33점 가운데 한국을 지도에 나타내지 않은 지도가 8점, 한국을 지도에 나타냈어도 점으로 나타낸 지도가 10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16세기 서양 고지도에는 동해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그려진 서양고지도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만 존재했을 뿐 지금의 동해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한국이 그려진 지도에서도 바다의 영역과 한계는 불분명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동쪽으로는 큰 대양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제작한 서양의 고지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바다를 ‘중국해’ 또는 ‘동양해(Oceanus Orientalis)’로 표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동양해’는 지금의 동중국해, 즉 동해와 태평양을 모두 합한 바다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sup>35)</sup>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도 가운데 16세기에 제작된 지도 중 동해 관련 지명이 나타나는 지도 4점의 표기를 살펴보면 ‘동양해’ (Ocean Oriental)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1점, ‘중국해’ (Mare Cin)라고 표기한 지도가 3점이다. 해당 지도의 제목과 제작 연도 또 그에 따른 동해 관련 지명 표기의 유형을 살펴보

35)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보고서, p. 90.

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동양해 또는 중국해로 표기한 16세기 지도

지도명	제작 연도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Indiae Orientalis Insvlarvmqve Adiacientivm Typvs〉	1570	Mare Cin
〈Indige Orientalis〉 (Southeast Asia/China/Japan)	1570	Mare Cin
〈Iaponiae Insvlae Descriptio〉	1595	Mare Cin
〈ROYAUME DU IAPON〉	1600	Ocean Oriental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6세기 후반의 지도 중 동해에 동양해, 중국해 등의 지명 표기가 나타나는 지도의 제작 연도는 앞에 제시한 표 3에서 보았듯이 ‘중국해’로 그 지도의 제작연도는 1570년이였다. 그러나 이 같이 서양 고지도상의 동해에 중국해라는 지명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도를 해당 사이트 전체 지도가 아닌 일부 지도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오일환(2004)의 연구에 따르면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발간된 서양의 지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고 있는 바다의 명칭을 동양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으며 일찍이 서양에서는 태평양을 동양(Oceanus Orientals), 동인도양(Oceans Indicus Orientals), 마젤란양(Oceanus Magellanicus)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sup>36)</sup>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시기상으로 ‘중국해’가 ‘동양해’보다 앞서지만 이를 일반화시켜 단정 짓기는 어렵다.

36) 오일환, 2004, “서양고지도의 ‘동해(東海, Sea of Korea)’ 표기와 유형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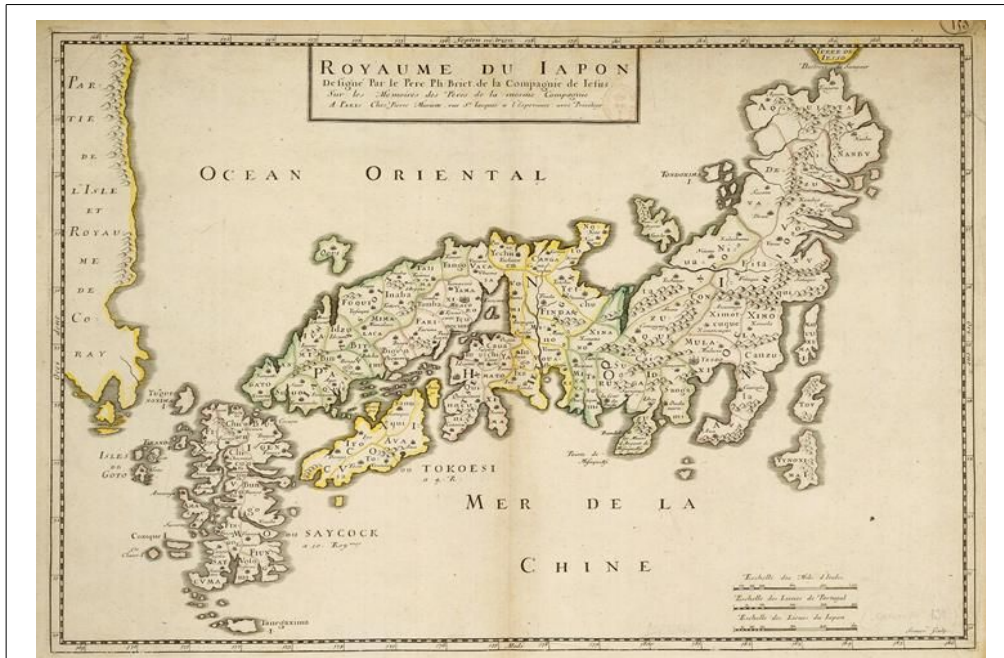


그림 5. <ROYAUME DU IAPON>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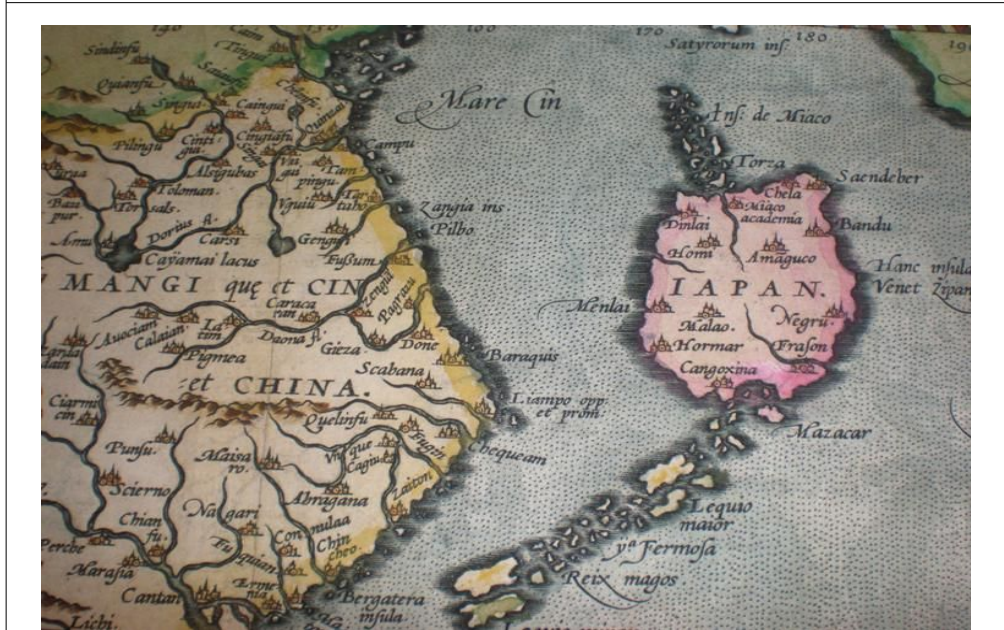


그림 6. <Indiae Orientalis Insularumque Adiacentium Typus> (1570)

## 제4장 17세기 서양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 제1절 17세기 전반 서양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과인드코리아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 가운데 분석 대상인 900점의 지도에서 제작 연대가 17세기 전반<sup>37)</sup>인 지도는 총 60점이다. 그 가운데 사진의 해상도 문제로 한계로 동해상에 표기한 지명을 식별하기 어려운 지도 4점을 제외하면 총 56점이다. 이에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서양 고지도 가운데 동해 지명 표기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지도 수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서양 고지도의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해당 지도 수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없음	37
동양해	3
중국해	11
한국해	1
일본해	1
태평양 계열 (태평양의 일부 및 남해=태평양)	3
<b>총</b>	<b>56</b>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세기 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에서도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동해’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지도에는 ‘동양해’ 보다는 ‘중국해’라는 표기가 동해상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해’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은 초기 ‘동양’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37) 본 연구에서 제작 연대를 분류할 때 17세기 전반인 지도는 제작연도가 1601~1650년인 지도이다.

지금의 한국 동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동양’의 세부 개념으로 바다 영역이 축소되었다<sup>38)</sup>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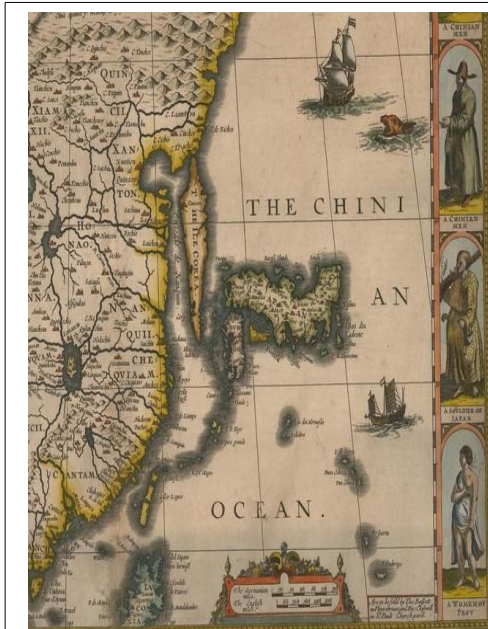


그림 7. <The Kingdom of China newly augmented by I.S> (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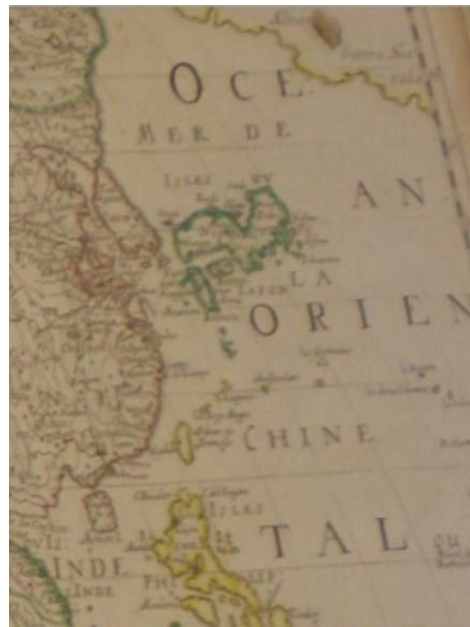


그림 8. <Asie> (1650)

즉, ‘동양’이라는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단순히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존 스피드(John Speed)가 1626년에 제작한 <The Kingdom of China newly augmented by I.S> (그림 7)에서 ‘동양’을 ‘중국양(The Chinian Ocean)’이라고 표기하면서 막연히 동쪽에 있는 바다가 아닌 ‘중국의 바다’라는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송(Nicolas Sanson)이 1650년에 제작한 <Asie> (그림 8)는 큰 글자로 표기된 ‘동양(Ocean Oriental)’ 아래 지금의 한국 동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영역을 ‘중국해(Mer de la Chine)’를 동양의 하위개념

38)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보고서, p. 93.

으로 인식<sup>39)</sup>하기도 하였다.

17세기 전반 제작한 지도들 가운데 눈에 띄는 지도들은 동해에 태평양 또는 태평양의 일부라고 나타낸 지도들이다.

표 5. 17세기 전반 지도 중 태평양 계열 표기 지도

지도명	제작연도	제작자	한국 형태	한국 국호	동해 관련 지명 표기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	1623	Hondius, Jodocus	섬	COREA Ins ? Caoli	MAR DEL ZUR
〈TARTARIA〉	1625	Hondius /Mercator	섬	COREA INS.	Maris Pacific Pars
〈A neue mape of Tartary〉	1626	John Speed	섬	COREA INS	PART OF PACIFIQUE SEA

동해에 태평양 또는 태평양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는 표 5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다. Corea라는 국호는 표기했지만 세 지도가 한국을 섬 국가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아시아에 있는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만이 있었을 뿐 그 국가 주변의 바다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인식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에서 한국을 조선이라는 국호와 함께 반도국으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 국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7세기 전반 서양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과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동해에 대한 표기는 당연히 앞서 살펴본 동양이라는 표기보다는 구체적이

39)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보고서, p. 94.

라고 할 수 있지만 17세기 전반 동해라는 바다에 대한 인식 및 표기가 이뤄지지 않고 큰 바다의 일부 혹은 그 자체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도쿠스 혼디우스(Jodocus Hondius)가 1623년에 제작한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은 동해에 ‘MAR DEL ZUR’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 이는 19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태평양이라는 표기가 정착하기 전까지 서양인들이 태평양을 Mar del Zur 즉, 남해라고 표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이는 〈TARTARIA〉(1625)와 〈A newe mape of Tartary〉(1626)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

40)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홈페이지(<http://oldmaps.khu.ac.kr/>) 유물자료 27번 해설 참조



그림 9.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 (1623)



그림 10. <TARTARIA> (1625)



그림 11. <A newe mape of Tartary> (1626)

한편, 1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서양 고지도 가운데 동해에 일본해라고 표기한 유일한 지도가 있다. 바로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이다.<sup>41)</sup> 《곤여만국전도》는 한국을 정확히 반도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선이라는 국호로 표기하였다. 이는 루브룩의 윌리엄(Willem van Ruysbro; William of Rubruck)에 의해 잘못 알려졌던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왜곡, 즉 조선이 섬 국가라는 것이 처음으로 수정된 것이다.<sup>42)</sup> 그러나 이 지도는 동해에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설명<sup>43)</sup>을 판각해 표기하였고 그 동쪽으로 일본해라고 나타냈다. 일부 학자들은 마테오 리치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다보니 동해라는 지명을 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림 12.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

41)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1602)의 경우 지도 제작자는 이탈리아인으로 서양인이지만 지도 제작국은 중국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도 제작자가 서양인이므로 서양 고지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42) 김상근, 2004, 세계지도의 역사와 한반도의 발견, 살림, p. 44.

43) “조선은 기자(箕子)가 봉한 나라인데 한나라와 당나라 때는 모두 중국의 도읍이었다. 지금은 조공국 가운데 첫 번째 국가이다. 예전에는 삼한, 예맥, 발해, 실직(悉直), 가락, 부여, 신라, 백제, 탐라 등의 나라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조선에) 병합되었다.”

이탈리아의 로버트 더들리(Robert Dudley)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 지역으로 제작한 지도인 <Carta Particolare della Grande Isola del' Giappone e di Iezo con il Regno di Corai et altre Isole in torno> (1646)에서 동해를 ‘한국해’ 라고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한국을 섬 국가, 즉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의 섬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지도가 만들어지기 약 40년 전에 이미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통해서 한국이 반도 국가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전반의 서양 고지도 제작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형태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이다. 하지만 섬의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국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REGNO DI CORAI e' Penisola로 표기하고 있다. 섬의 북동쪽에는 MARE DI CORAI, 즉 한국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림 13. <Carta Particolare della Grande Isola del' Giappone e di Iezo con il Regno di Corai et altre Isole in torno> (1646)

## 제2절 17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과인드코리아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 가운데 분석 대상인 955점의 지도에서 제작 연대가 17세기 후반<sup>44)</sup>인 지도는 총 139점이다. 이 가운데 웹사이트 상에서 지도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식별 불가능한 지도 7점을 뺀 132점을 분석하였다.

표 6. 17세기 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의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지도 수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없음	82
동양(Oceans Oriental) 유형	20
중국해 유형	20
한국해 유형	8
일본해 유형	1
기타	1
<b>총</b>	<b>132</b>

17세기 후반 서양에서 제작한 분석 대상 지도 132점 가운데 82점이 동해에 어떠한 지명도 나타나지 않는 지도였다. 그러나 16세기와는 달리 17세기 전·후반에 만들어진 분석 대상 지도들을 보면 동해에 ‘동양해’ 라는 막연한 표기에서 ‘중국해’ 로 좀 더 자세한 지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16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존재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sup>45)</sup>

44) 본 연구에서 제작 연대를 분류할 때 17세기 후반은 지도의 제작연도가 1651~1700년인 지도를 말한다.

45)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보고서, p. 93.

이로 인하여 17세기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는 동해에 ‘중국해’, ‘한국해’, ‘일본해’와 같이 국가의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해’ 명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해’에 대한 서구인의 인식이 초기 ‘동양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지금의 한국 동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동양해’의 세부 개념으로 바다 영역이 축소되었음<sup>46)</sup>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 경향은 얀소니우스가 1658년 일본과 한국을 대상 지역으로 그린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 INSUIALARUM ADJACENTIUM> (그림 14)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도에서는 동해 뿐 만 아니라 태평양의 일부까지도 ‘Oceanus Chinensis’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 INSUIALARUM ADJACENTIUM> (1679)

46)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 93.



그림 15. <Great Tartary The Isle of Iapon> (1682)

뿐만 아니라 동해에 나타난 표기 가운데 ‘중국해’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South Sea’이다. 이는 허만 몰(Herman Moll)이 1682년에 제작한 <Great Tartary The Isle of Iapon> (그림 15)에 나타난다. 이 지도는 한국을 섬 국가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해에는 ‘South Sea’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그 남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로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7세기 후반의 서양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에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동양’이라는 막연한 표기에서 ‘중국양’ 또는 ‘중국해’, ‘동양해’ 과 ‘중국양’ 등의 병기 등으로 구체적인 표기를 하였으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표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 〈A General Map of Asia〉 (1660)



그림 17. 〈Les Isles Du Japon〉 (1683)

한편,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서양 고지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해 표기가 나타나는 지도는 프랑스의 여행가 따베르니에(Jean-Baptiste Tavernier)가 1679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인 〈Carte Des Isles Du Japon〉(그림 1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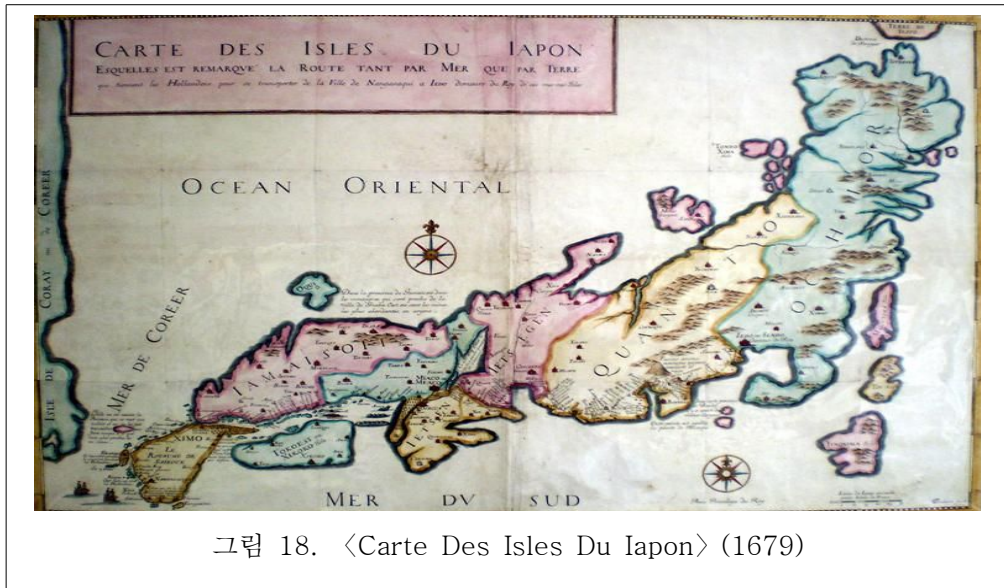


그림 18. 〈Carte Des Isles Du Japon〉(1679)

〈그림 1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지도의 대상 지역은 일본이지만 한국이 부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비록 한국이 섬 국가라는 잘못된 지리적 인식을 지도에 나타냈지만, 그 섬의 동남쪽 또는 동쪽으로 한국해(MER DE COREER)라고 표기하고 있어 의미 있는 지도이다. 더구나 지도에서 위 지도의 경우에는 한국해라는 명칭을 현재의 대한해협(대만해협)의 위치에 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7세기 후반 따베르니에의 지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sup>47)</sup>이며 이는 대한해협을 ‘한국해’로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다.<sup>48)</sup>

뿐만 아니라 따베르니에의 〈Carte Des Isles Du Japon〉는 지금의 동해를 ‘동양해’로 표기하고, 그 일부를 ‘한국해’로 표기한 지도라는 점에서 중요

47)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 109.

48)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 98.

하다. 파베르니에의 이 같은 표기로 인해 이후 점차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면서 ‘한국해’가 ‘동양해’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지도이다.

이후 John Senex가 1700년에 제작한 〈ASIA〉는 ‘동해(THE EASTERN)’와 ‘한국해(COREA SEA)’라고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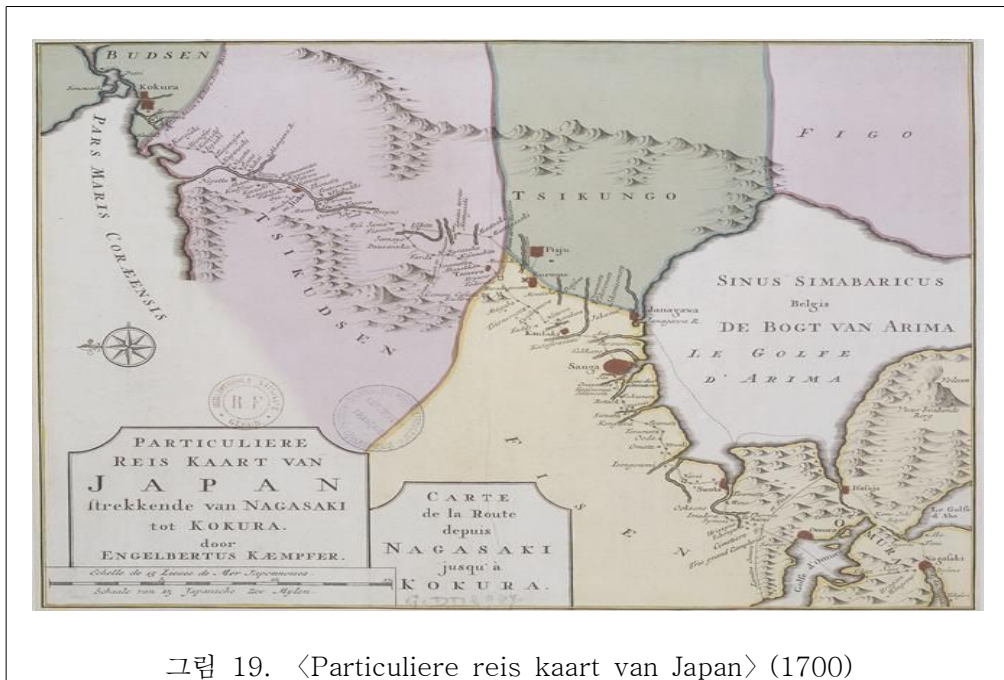


그림 19. 〈Particuliere reis kaart van Japan〉 (1700)

Engelbertu Kaempfer가 1700년에 제작한 〈Particuliere reis kaart van Japan〉(그림 19)는 지도의 왼쪽에 한국해의 일부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가 1690년 9월,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들의 출입을 허가했던 나가사키에 도착한 후 1692년 11월 일본을 떠날 때까지 도쿄 등을 두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아마도 당시 그는 일본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바다의 명칭을 그 바다의 왼쪽에 있는 조선, 즉 한국의 바다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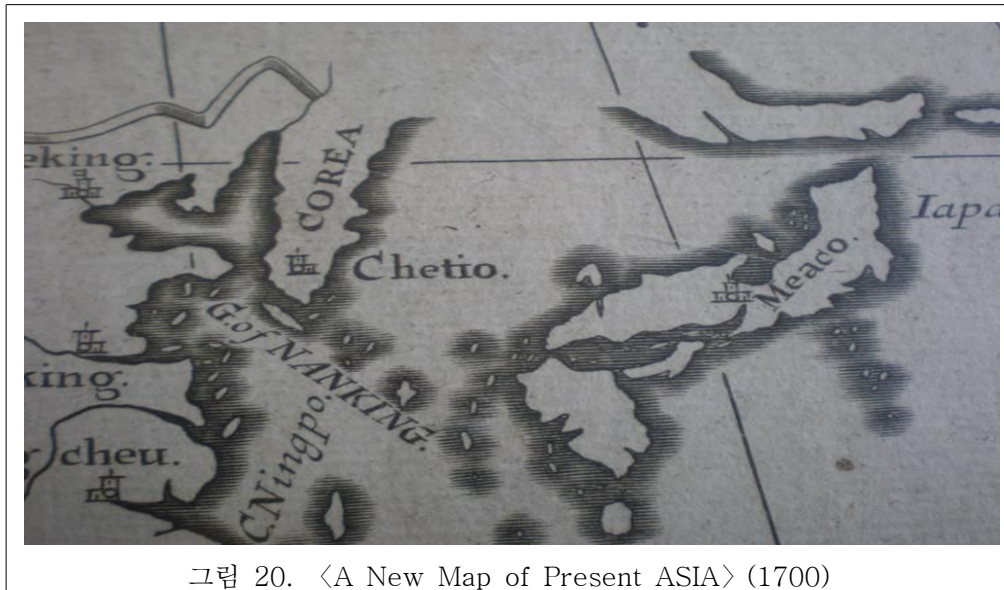


그림 20. <A New Map of Present ASIA> (1700)

눈에 띄는 점은 영국의 Wells가 1700년에 제작한 <A New Map of Present ASIA> (그림 20)라는 지도이다. 이 지도의 경우에는 고대의 아시아와 당시의 아시아를 표현한 이른바 역사지도다. 고대의 아시아를 표현한 지도인 <A New Map of Ancient ASIA>에는 한국이 반도로 그려져 있지만 반도 위에는 어떠한 지명도 표기하지 않았다. 이 지도의 제목 아래 “고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과 국호와 함께 주요 도시, 강, 산 등”이라는 설명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아시아 가운데 특히 한국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시의 아시아를 표현한 지도에는 반도국 위에 ‘Corea’라고 표기하였다. 또 반도 남쪽으로는 현재의 제주도로 추정할 수 있는 섬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그 섬 위에는 아무런 지명도 표기하지 않았다. 반면에 반도 동쪽으로 즉, 동해에 ‘Chetio’라는 지명이 보인다.

표 7. 17세기 후반 제작한 서양 고지도의 한국해 표기 유형

지도명	제작 연도	제작자	한국 형태	국호 표기 여부	동해 지명 표기 유형
〈Carte Des Isles Du Japon〉	1679	Jean-Baptiste Tavernier	섬	ISLE DE CORAY ou de COREER	MER DE COREER, OCEAN ORIENTAL
〈Charte Der Iaponischen Inseln〉	1681	Jean-Baptiste Tavernier	섬	DIE INSEL COREA ODER DAS LAND	DIE OST SEE, DAS MEER DER COREER
〈A New Map of Present ASIA〉	1700	Wells	반도	COREA	Chetio
〈ASIA〉	1700	John Senex	반도	K OF COREA	THE EASTERN OR COREA SEA
〈Particuliere reis kaart van Japan〉	1700	Engelbertus Kaempfer	-	-	Pars Maris Coraeensis

## 제5장 18세기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 제1절 18세기 전반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과인드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도 가운데 분석 대상 지도인 900점의 지도 중 제작 연대가 18세기 전반<sup>49)</sup>인 지도는 171점이다. 그 가운데 웹사이트에서 지도 이미지의 불분명 등으로 식별 불가인 지도 5점을 제외하면 총 166점의 지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 18세기 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해당 지도 수
동해에 지명 표기 없음	49
동양해 또는 중국해 표기 유형	36
한국해 표기 유형	72
일본해 표기 유형	5
기타	4
<b>총</b>	<b>166</b>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8세기 전반에도 여전히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는 지도, 또 동양 또는 중국해 표기 유형의 지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는 표기 유형, 즉 한국해 표기 유형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서양 지도제작자들 사이에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국 대륙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존재하는 반도국이며 그로 인해 그 반도 동쪽에 있는 동해에도 그들의 관습, 즉 국가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에는 그 국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바다의 이름을 붙이기에 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지명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9) 본 연구에서 제작 연대를 분류할 때 18세기 전반은 지도의 제작연도가 1701~1750년 지도를 말한다.

프랑스의 지리학자인 니콜라스 드 페르(Nicolas de Fer)는 1703년에 제작한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에서 동해에 명칭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다로서 타르타르인들은 동해라고 부른다”고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타르타르인들이 부르는 동쪽바다의 명칭으로서의 ‘동해’는 1700년대 초반 약 30년간 사용되다가 서양 고지도 상에서 사라졌다.<sup>50)</sup> 이에 대해 서정철(1991)<sup>51)</sup>은 이후 동해를 ‘Mer Orientale’ 이라고 표기한 지도들은 이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21. <La Partie Orientale De L'Asie> (1703)

50)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 104.

51)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p. 46.

한편, 앞서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동해에 ‘동양해’ 또는 ‘중국해’ 등의 표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비해 한국해 표기 유형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해 표기 유형 중에서도 ‘Mer de Corée’가 18세기 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 가운데 한국해 표기 유형인 72점 중 38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Mer de Corée’ 표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지도학자 G. De Lisle가 1705년에 제작한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그림 22)에 ‘Mer Orientale ou Mer de Corée’라고 나타내면서 그 이후 18세기 전반 뿐만 아니라 후반까지도 서양 고지도에 쓰였다.

G. De Lisle이 1705년에 제작한 지도로부터 약 40년 뒤에 Jacques-Nicolas Bellin이 1748년에 만든 〈L’Empire de LA CHIN〉(그림 24)에는 동해에 ‘Mer de Corée’를 단독으로 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G. De Lisle의 지도에 비해 한국에 대한 묘사 역시 비교적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G. De Lisle의 지도(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향하는 반도의 모습이었다면 Jacques-Nicolas Bellin의 지도(그림 24)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은 현재와 비교한다면 부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반도 전체의 윤곽은 상대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Jacques-Nicolas Bellin의 지도가 1737년에 D’Anville이 만든 〈Royaume de Corée〉(그림 23)<sup>52)</sup>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2) D’Anville(1697~1782년)은 평생 동안 지리와 역사 지리를 연구하였다. (중략)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한 그의 1737년의 《신중국지도첩》이 출판된 이후로 거의 모든 서양 지도가 그의 지도를 따랐다. 지도첩 안에는 갓 쓰고 수달을 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옆에 그려 넣은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가 있는데 이 전도는 한국에 대한 첫 전도라는 점과 지도의 정확성과 신빙성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작된 지도들의 모형 역할을 하였다. (중략) 서울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고 울릉도와 독도가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에 있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 책정에 대한 문제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pp. 47~48.)





그림 25. <Asia> (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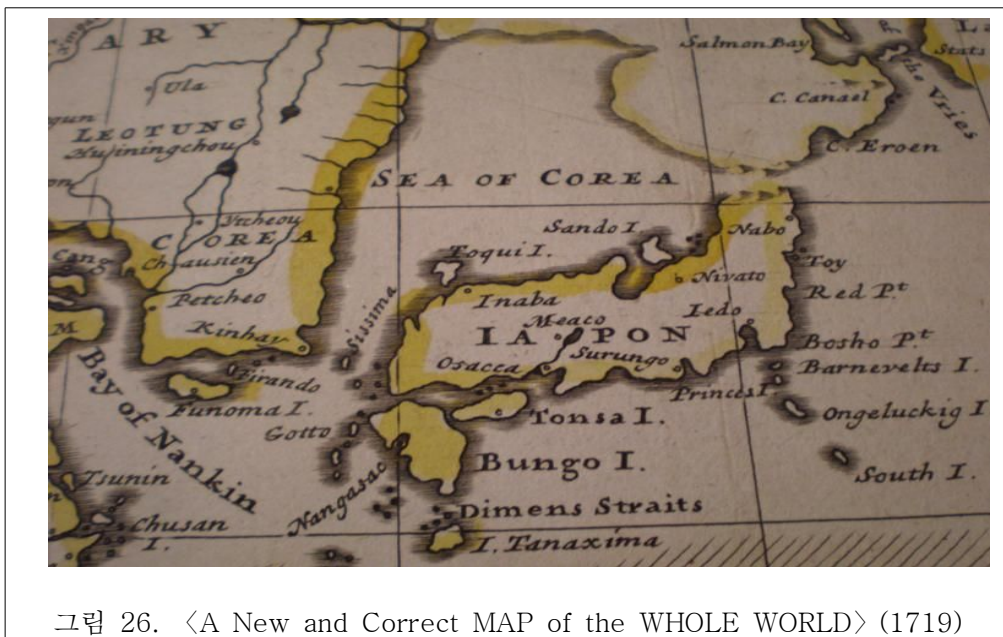


그림 26. <A New and Correct MAP of the WHOLE WORLD> (1719)

그러나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지명은 ‘동해’와 ‘한국해’ 가운데 하나의 표기로 통일하여 나타나기 보다는 혼재하여 나타난다. 이 같은 지도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세넥스(Senex)가 1725년에 제작한 〈Asia〉<sup>53)</sup>(그림 25)에 ‘THE EASTERN or COREA SEA’라고 표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는 동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고,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에서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그 혼돈스러웠던 시기에도 ‘한국해’를 동해에 표기한 지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지도가가 허만 몰(Herman Moll)이 1719년에 제작한 세계지도인 〈A New and Correct MAP of the WHOLE WORLD〉의 동해에 ‘SEA OF COREA’가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8세기 초반에 서양에서 제작한 지도들이 비록 ‘동해’와 ‘한국해’를 동해에 일관적으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전 시기의 지도들에 비해 한국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분석 대상 지도 가운데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도가 눈에 띈다. Matthaeus Seutter가 1740년에 제작한 〈Imperium Japonicum Per Sexaginta Et Sex Regiones〉은 일본을 대상 지역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이 지도의 왼쪽 상단에는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 세계의 지명인 ‘조선국(朝鮮國)’과 ‘부산해(釜山海)’, 그리고 ‘COREA’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 제작자인 Matthaeus Seutter는 일본을 6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여 나타낸 이 지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조선을 표현하고자 그 일부만을 그렸고 그 위에 국가명칭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쪽에 있는 바다 명칭을 특정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비롯한 부산해라고 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도시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칭이 등장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53) 세넥스의 아시아지도의 지도 이미지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이미지가 불분명하여 다른 웹사이트(<http://www.raremaps.com/cgi-bin/gallery.pl/detail/0926>)에서 찾은 이미지로 대신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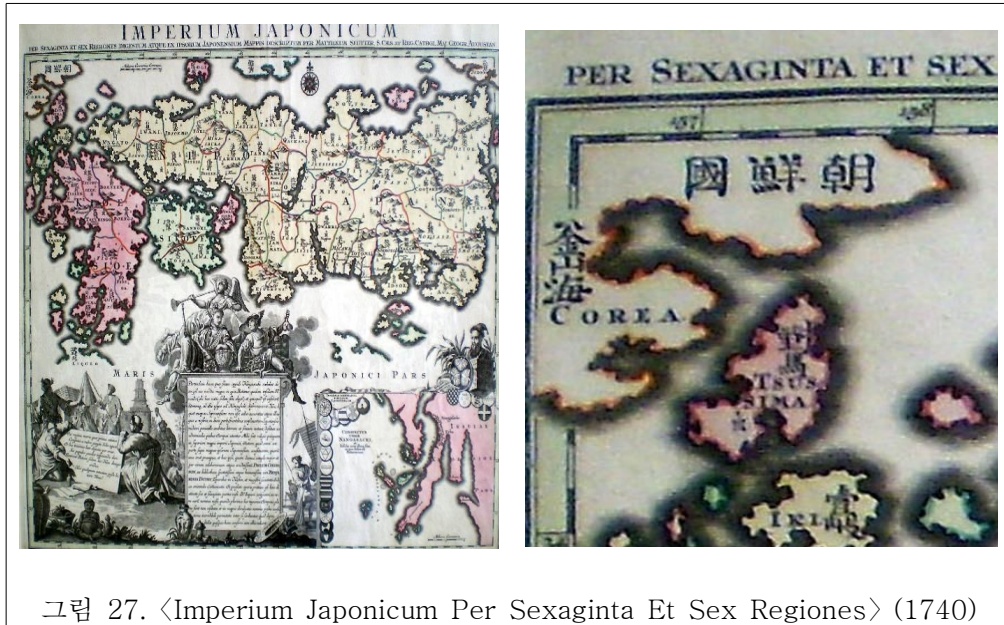


그림 27. <Imperium Japonicum Per Sexaginta Et Sex Regiones> (1740)

한편, 18세기 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 가운데 주목되는 지도는 바로 ‘한국해(Mer de Coree)’와 ‘일본해(Mer du Japon)’를 함께 표기한 지도이다. 이 같은 지도는 로베르 드 보공디(Robert de Vaugondy)가 1750년에 제작한 일본과 한국을 대상 지역으로 삼은 <L’ Empire du Japon> (그림 28)이다. 동해 영역에 ‘일본해’와 ‘한국해’를 병기한 이 지도는 ‘한국해’와 ‘동해’의 명칭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지만, 두 표기가 두 나라에 인접한 가까운 바다에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이 시기에 제작된 다른 지도에서는 이러한 표기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칭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sup>54)</sup>

54)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 112.



그림 28. <L' Empire du Japon> (1750)

## 제2절 18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의 동해 관련 지명

과인드코리아 웹사이트상의 분석 대상 지도 900점 가운데 제작 연대가 18세기 후반<sup>55)</sup>인 지도는 총 280점이다. 지도 이미지 식별 불가 등의 이유로 25점을 제외한 분석 대상 지도는 255점이다.

표 9. 18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해당 지도 수
한국해 표기 유형	160점
일본해 표기 유형	21점
동해 지명 표기 없음	74점
식별 불가 등	25점
<b>총</b>	<b>280점</b>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 가운데 동해 지명이 한국해 유형으로 나타나는 지도가 확연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차원적으로 서양의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에 지명을 표기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동해가 단순히 그들의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바다’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국호를 사용하는 바다 명칭까지 지도에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8세기 서양의 지도 제작자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이 이뤄지게 된 까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Anville이 만든 〈Royaume de Corée〉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가 한국을 섬이 아닌, 비교적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반도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도 내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명 표기 등이 이뤄져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55) 본 연구에서 제작 연대를 분류할 때 18세기 후반은 지도의 제작연도가 1751~1799년인 지도를 말한다.

인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 서양의 지도 제작자들이 동해를 표기할 때 D' Anville이 제작한 지도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에 의거해 한 국가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바다의 경우에는 왼쪽에 위치한 그 국가의 국호를 사용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관습으로 이어져 한국의 국호를 사용한 바다 이름이 지도상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눈에 띄게 증가한 18세기 후반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나타나는 한국해 표기 지명을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면 Mer de Corée, Sea of Korea, Sea of Korea, Coreia Sea, Gulf of Corea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9.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 (1760)

한국해 표기 지명 가운데 Mer de Corée는 앞서 18세기 전반의 분석 대상 지도에 대한 유형 분류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Jacques-Nicolas Bellin이 1748년에 만든 〈L'Empire de LA CHIN〉에는 동해에 ‘Mer de Corée’를 단독으로 표기한 이후에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표기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러한 표기를 동해에 한 대표적인 지도 제작자로는 S. Janvier 등이 있다. 그림 29에서 알 수 있듯이 S. Janvier는 동해에 ‘Mer de Corée’라고 표기하였으며, 일본의 남쪽에는 일본의 바다와 관련한 지명이 아닌 일본의 국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0.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 (1753)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분석 대상 지도 가운데 동해에 ‘Sea of Korea’ 를 표기한 대표적인 지도로는 J. Gibson이 1753년에 제작한 아시아 지도인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그림 30)가 있다. 이 지도는 한반도의 형태는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반도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하게 뺏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해에 ‘Sea of Korea’ 라고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분석 대상 지도 가운데 동해에 ‘Sea of Korea’ 를 표기한 대표적인 지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0. 18세기 후반 제작한 서양 고지도 중 ‘Sea of Korea’ 표기 지도

지도명	제작 연도	제작자	제작처	국호	지명 표기 유형
The world agreeable to the latest discoveries	1762	T. Jefferys	London	Korea	Sea of Korea
Present Asia	1783	S. I. Neele	London	Corea	Sea of Korea
Asia, from the Latest Authorities	1790	Thomas Conder	London	Korea	Sea of Korea



한편,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해 영역을 ‘한국해’ 대신 ‘한국만(Gulf of Korea)’, 또는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들이 특히 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sup>56)</sup> 표 11과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8세기 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 가운데 ‘한국만(Gulf of Korea)’이라고 표기한 지도 총 19점 중 12점이 영국에서 제작한 지도였다.

그러나 이후 아론 애로스미스(Aaron Arrowsmith)가 1790년에 지도 제작소를 설치하고 《A Chart of World Upon Mercator's Projection, Showing all the New Discoveries, ... with the Tracts of the most distinguished Navigators since 1700》를 출간한 후 곧이어 1798년과 1799년에 세계지도를 출간하면서 그 동안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표기해 온 동해 명칭을 ‘SEA OF JAPAN’으로 표기하였다.<sup>57)</sup> 이러한 영국 내 지도 제작자들 사이의 지명 표기의 변화는 이후 19세기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지명 표기가 압도적으로 일본해 유형의 표기로 나타나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 내 이러한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라페루즈의 탐험 때문이었다.

---

56) 국토지리정보원, 2007, 전게서, p. 113.

57) 이기석, 2008, “‘동해(東海)’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푸른길, p. 318.

표 11. 18세기 후반 제작한 서양 고지도 중 ‘GULF OF COREA’ 표기 지도

지도명	제작 연도	제작자	제작처	동해 표기 지명
An Improved Map of Asia with all the Discoveries that have been Made to the present time	1762	J. Hinton	London	GULF OF COREA
An improv'd map of Asia	1762	J. Hinton	London	GULF OF COREA
Asia	1772	R. Sayer ?	내용 없음	GULF OF COREA
Asia divided into its Principal States	1774	Samuel Dunn	London	GULF OF COREA
A Chart Of The Indian Sea And Eastern Ocean	1785	Thomas Jefferys Sculp	London	GULF OF COREA
An accurate map of the Russian empire both in Europe and Asia	1785	C. Dilly, G. Robinson	London	COREA GULF
An Accurate Map of Russian Empire both in Europw And Asia	1785	Guthries	London	Korea Gulf
Asia and its Islands according to D' Anville	1787	Jean Baptiste Bourguignon d' Anville	London	GULF OF KOREA

(표계속)

지도명	제작 연도	제작자	제작처	동해 표기 지명
Asia	1790	내용 없음	Venice	G. di Corea
The Russian empire, in Europe & Asia, with the northern discoveries between Asia & North America	1790	Thomas Bowen	내용 없음	COREA GULF
Bowles's new one-sheet map of Asia	1790	L. Delarochette	London	GULF OF COREA
A New Map of Asia, Drawn from the Best Authorities	1791	Brookes Gaazetteer	내용 없음	Gulf of Korea
A new map of Asia	1791	Russell	London	Gulf of Corea
A New Map of Asia, from the Latest Discoveries	1794	Robert Wilkinson	London	GULF OF COREA
ASIA	1794	A. Keith	Dublin	GULF OF COREA
A new map of Asia drawn from the best authorities	1796	내용 없음	Boston	Gulf of Corea

(표 계속)

지도명	제작 연도	제작자	제작처	동해 표기 지명
Asia and Its Island	1796	D' Anville and Robert Laurie	London	GULF OF COREA
The world on Mercators projection	1798	Fairman	New York	G. of Corea
Asia	1798	Russell	London	GULF OF COREA

## 제6장 19세기 고지도상의 동해 관련 지명

제작 연대에 따른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지명 표기의 유형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예외인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중국에 속해 있거나 섬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반도국가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동해 지명 역시 동양이라는 막연한 표기에서 국호로 표기하는 바다 명칭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18세기 초까지 ‘동해’는 서양인들에게 미지의 바다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식민지 건설에 나서게 된다. 결과적으로 미지의 세계인 아시아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이 필요했고 그로 인한 탐험까지 이뤄진 것이다.

인간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그 방법적인 변화는 결국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으로 이어졌고 그 대상은 바로 ‘동해’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지도 작성에 측지와 천문학 그리고 수학을 동원하여 당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18세기 말엽 동해를 비롯한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와 육지와 섬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탐사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sup>58)</sup>

58)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p. 48.

저자는 라 페루즈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해군 총독 출신의 해양학자 브로사르(Brossard)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프랑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라페루즈의 탐험을 강행한 이유를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모피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던 영국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둘째,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을 탐험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식민지 영토를 확보하며 셋째, 인도와 캐나다를 영국에 빼앗기고 난 뒤이지만 해양 국가로서의 이름을 내외 안팎에 떨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p. 98.)

이에 1785년 8월 1일 라 페루즈가 당대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던 과학자들<sup>59)</sup>과 함께 부솔(Boussole)호와 아스트롤라브(Astrolabe)호를 이끌고 탐험에 나선다. 탐험을 나선지 1년 10개월 여만인 1787년 5월에는 드디어 제주도 근해로 접근하여 제주도, 남해를 거쳐 동해안 쪽을 탐사하다가 동해안의 해안선이 그 당시의 지도와 다른 점을 기록하고는 울릉도를 통과하면서<sup>60)</sup> 그곳에 탐험에 함께한 천문학자인 르포트 다즐레(Lepaute Dagelet)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림 33. <Carte Generale des Decouvertes> (1787)

59) 잘 알려진 인문들만 소개해 보면 지리학자 베르니제(Bernizet), 의무대장 롤랭(Rollin) 박사, 아카데미 회원인 천문학자 르포트 다즐레(Lepaute Dagelet), 물리학자 라마농(Lamanon), 식물학자 콜리뇽(Collignon)과 기타 전문 기사(技士)들이 다수 있었다.(서정철, 1991, 전게서, pp. 95~97.)

60) 서정철, 1991, 전게서, p. 98.

라페루즈의 탐험 결과는 1797년 프랑스 정부에 의해 『라페루즈 항해기』로 출간되었다.<sup>61)</sup> 『라페루즈 항해기』와 동시에 출간된 『라페루즈 항해도첩』은 이듬해 로빈슨(Robinson)이 영문으로 번역해 출판하였다. 이 항해도첩 가운데 라페루즈의 업적을 가장 잘 나타낸 해도가 제39도에 있는데 1787년 4월 10일 마닐라를 떠나 우리나라 근해를 거쳐 9월 7일 캄차카 반도에 도착할 때까지의 발견사항이 한 눈에 나타나 보인다.<sup>62)</sup> 이 해도의 일부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반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호는 CORÉE로, 또 동해상에는 MER DU JAPON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라페루즈 항해기』의 동해 항해와 관련된 지도에는 ‘한국해’와 ‘일본해’ 표기 없이 타르타르 연안 쪽에 ‘타르타르해협(Manche de Tartarie)’이라고만 표기한 지도도 있고, 일본 근해를 지나는 항로를 언급한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한 지도도 있다. 그는 제주도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 길목을 ‘대한해협’으로, 일본 연안을 거쳐 항해할 때는 ‘일본해’로, 타르타르 연안을 항해할 때 ‘타르타르해협’으로 명칭을 임의로 붙였다고 볼 수 있다.<sup>63)</sup>

이렇듯 『라페루즈의 항해기』의 본문에는 ‘한국해’로 표기하고, 또 일본과 인접한 바다를 그린 지도에는 ‘일본해’로 명기한 것은 앞으로 유럽에서 제작될 지도에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일본해’의 표기는 당시 지도제작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었고 유럽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명칭도 아니었지만, 문제는 『라페루즈의 세계탐험기』에 포함된 항해지도에 ‘

61) 『라페루즈 항해기』는 1797년에 파리에서 프랑스 정부가 4권의 책으로 발행한 것이 최초가 된다. 처음 발행한 책의 크기는 세로가 31.3cm, 가로 23.7cm로 제1권이 346면, 제2권 398면, 제3권 422면, 제4권 309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라페루즈 항해도첩』은 세로 45.7cm, 가로 30cm의 크기를 가졌고 총 69 도면이 있다. 이 도면 속에는 해도가 16장, 항박도 15장, 측도 8장, 주민도 8장, 선박도 6장, 박물학에 관한 것 11장, 기타 5장이 들어있는데 해도와 항박도는 당시 해군성 해도 담당자로 있던 부아슈(Buache, de la Neuville, Jean Nicholas, 1741~1825)가 원도면을 정리하였다.(한상복, 1988, 해양학 속의 한국학, 해조사, p. 303.)

62) 한상복, 1988, 해양학 속의 한국학, 해조사, p. 304.

63) 국토지리정보원, 2007, 위 연구보고서, pp. 115~116.

일본해' 표기가 등장하면서 이후 유럽의 한국관련 지도제작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sup>64)</sup>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도 가운데 19세기 전반<sup>65)</sup>에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 147점을 동해 지명 표기 유형별로 구분했다.

표 12. 19세기 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해당 지도 수
한국해 표기 유형	34
일본해 표기 유형	66
한국해와 일본해 병기	4
식별 불가 등으로 지명 확인 불가	36
기타	7
<b>총</b>	<b>147</b>

물론 본 연구 역시 해당 사이트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어떤 시기보다도 서양 고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 대상 지도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제작한 서양 고지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세기 후반에 제작한 분석 대상 지도는 총 80점이다. 해당 제작연대의 동해 지명 표기 유형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3. 19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	해당 지도 수
한국해 표기 유형	4
일본해 표기 유형	71
한국해와 일본해 병기	1
식별 불가 등으로 지명 확인 불가	4
<b>총</b>	<b>80점</b>

64) 국토지리정보원, 2007, 위 연구보고서, p. 116.

65) 본 연구에서 제작 연대를 분류할 때 19세기 초반은 지도의 제작연도가 1800~1850년인 지도를 말한다.

표 13과 같이 19세기 후반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 표기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해 표기 유형이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해 표기 유형이 증가하였다. 일본해 표기 유형은 Sea of Japan, Sea of Japon, Japanisches Meer, Japan Sea로 나타난다. 19세기 후반 동해상에 일본해 표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 여러 논의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지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시볼트의 지도이다. 1832년에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 섬에 체류한 독일인 의사 필리프 본 시볼트(Philip F. von Siebold)가 다카하시 가케야스(高橋景保)의 지도를 번역하여 독일에서 출간하였고, 1840년 일본 자료를 근거하여 《KARTE VOM JAPANISCHEN REICHE》를 유럽에서 출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반영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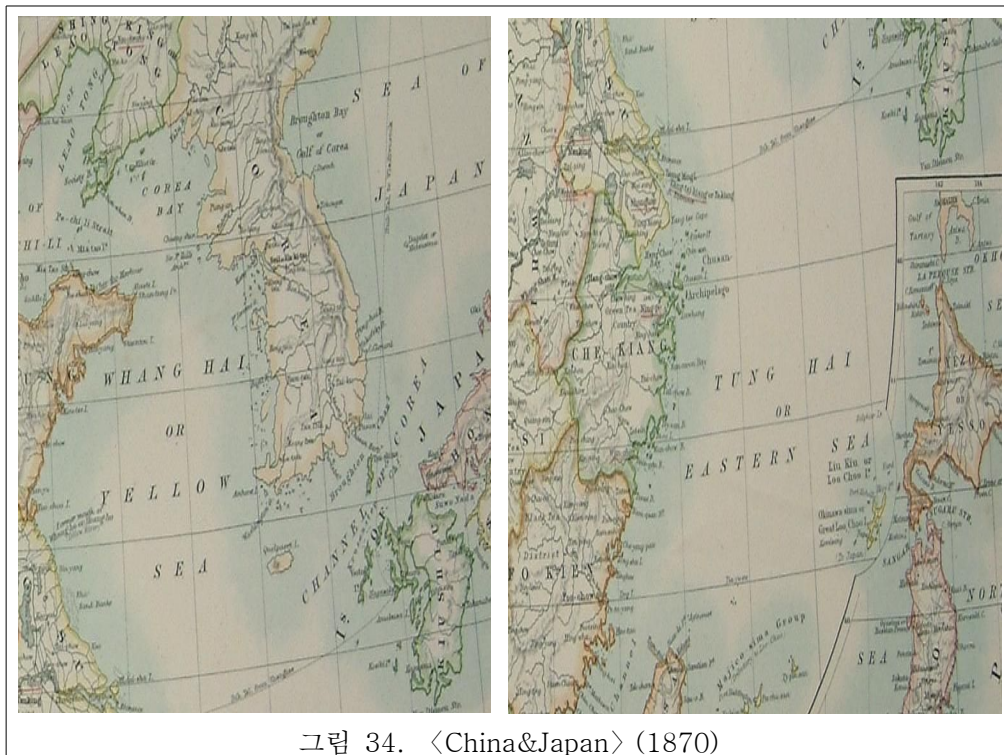


그림 34. <China&Japan> (1870)

66) 이기석, 2008, “‘동해(東海)’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푸른길, p. 319.

동해에 ‘Sea of Japan’ 을 표기한 지도의 대표적인 예는 Johnston이 1870년에 제작한 중국과 일본을 대상 지역으로 삼은 〈China&Japan〉 (그림 34)이다. 이 지도는 동해 가운데에 ‘Sea of Japan’ 라고 표기하였고, 지금의 영흥만에 해당하는 쪽에 ‘Broughton Bay or Gulf of Corea’ 라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황해에는 ‘WHANG HAI OR YELLOW SEA’ 라고 표기하였다.

## 제7장 종합분석

본 연구는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나타난 요소 가운데 지명, 그 중에서도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약 4천 여 점의 서양 고지도를 수집한 뒤 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의 고지도 가운데 900점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작연대가 16세기인 서양의 고지도는 33점이었다. 그 가운데 동해에 지명을 표기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동양해’ (Ocean Oriental)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1점, ‘중국해’ (Mare Cin)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3점이었다. ‘동양해’ (Ocean Oriental)의 대표적인 지도는 〈ROYAUME DU IAPON〉 (1600)이며, ‘중국해’ (Mare Cin)의 대표적인 지도는 〈Indiae Orientalis Insvlarvmqve Adiacentivm Typvs〉 (1570)이다.

2. 제작연대가 17세기 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60점(식별 불가인 지도 4점 제외)이었다. 여전히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은 지도가 37점으로 가장 많지만 ‘동양해’의 세부 개념으로 ‘중국양’ (The Chinian Ocean) 또는 ‘중국해’ (Mer de la Chine)라고 표기한 지도가 11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동해를 태평양 또는 태평양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가 3점이었으며 요도쿠스 혼디우스(Jodocus Hondius)가 1623년에 제작한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에 나타난 ‘MAR DEL ZUR’가 대표적이다.

3. 제작연대가 17세기 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139점(식별 불가인 7점 제

외)으로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은 지도가 82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시기 눈에 띄는 점은 얀소니우스가 1658년 제작한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 NSUILARUM ADJACENTIUM〉와 같이 ‘중국해’를 표기한 지도가 20점이었다. 이는 ‘동양’이라는 막연한 표기에서 ‘중국양’ 또는 ‘중국해’ 등으로 구체적인 지명 표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 만 아니라 이 시기 프랑스의 타베르니에(Jean-Baptiste Tavernier)가 1679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인 〈Carte Des Isles Du Japon〉에서와 같이 대한해협에 ‘한국해(Mer de Coreer)’가 등장하였으며 존 세넥스(John Senex)가 1700년에 제작한 〈ASIA〉에는 ‘동해’ (The Eastern)와 ‘한국해’ (Corea Sea)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총 8점이었다.

4. 제작연대가 18세기 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171점(식별 불가인 5점 제외)으로 그 가운데 72점이 동해에 한국해 표기를 하였다. 한국해 표기 중에서도 ‘Mer de Corée’이 38점으로 G. De Lisle가 1705년에 제작한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을 기점으로 18세기에 대표적인 동해 지명 표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5. 제작연대가 18세기 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280점으로 그 가운데 한국해 표기 유형이 160점으로 나타났다. S. Janvier는 1760년에 제작한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에 ‘Mer de Corée’로, J. Gibson은 1753년에 제작한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에서 ‘Sea of Corea’로 표기하였다.

6. 제작연대가 19세기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227점이었다. 19세기 전반 한국해 등으로 표기한 지도는 34점, 일본해 등으로 표기한 지도는 66점이었다. 특

히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동해 지명 표기가 4점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라페루즈 탐사 이후 동해가 일본해 표기로 바뀌었고, 동해는 지금의 동중국해 표기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 제8장 결론

지도는 그 시대의 자연 뿐 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낸 많은 인문 환경을 일정한 축척을 사용해 담아낸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도는 단순히 그 사회의 표면만을 축소해 낸 것이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세계관까지도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窓)’ 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를 ‘본다’ 고 하지 않고 ‘읽는다’ 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도는 이 뿐 만 아니라 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기에 이를 읽어 내기 위해서는 지도 위 다양한 요소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입각해 본 연구는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나타난 요소 가운데 지명, 그 중에서도 ‘동해’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제작연대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약 4천 여점의 서양 고지도들을 수집한 뒤 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의 고지도 가운데 900점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서양 고지도에 관한 연구와 동해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관한 연구는 1992년 이찬의 『한국의 고지도』 이후 그 연구 분야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서양 고지도 수집 자체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도에 나타난 한국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한 데이터화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의 동해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 연구가 해외 소재 대학 또는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관련 지도를 시대별로 또는 그 유형보다는 동해 표기가 그 수에서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본 연구 역시 그러한 연구 방법에서 탈피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도의 수보다는 해당 제작 연대의 계열 파악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는 제작 연대에 따라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단, 본 연구가 파인드코리아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지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분석 대상 지도를 시대별로 분류하고 난 뒤 시대별로 서양 고지도 상에서 동해 표기의 유형이 어떠한지 그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작연대가 16세기인 서양의 고지도는 33점이었다. 그 가운데 동해에 지명을 표기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동양해’ (Ocean Oriental)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1점, ‘중국해’ (Mare Cin)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3점이었다. ‘동양해’ (Ocean Oriental)의 대표적인 지도는 〈ROYAUME DU IAPON〉(1600)이며, ‘중국해’ (Mare Cin)의 대표적인 지도는 〈Indiae Orientalis Insvlarvmqve Adiacentivm Typvs〉(1570)이다.

제작연대가 17세기 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60점(식별 불가인 지도 4점 제외)이었다. 여전히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은 지도가 37점으로 가장 많지만 ‘동양해’의 세부 개념으로 ‘중국양’ (The Chinian Ocean) 또는 ‘중국해’ (Mer de la Chine)라고 표기한 지도가 11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동해를 태평양 또는 태평양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가 3점이었으며 요도쿠스 혼디우스(Jodocus Hondius)가 1623년에 제작한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에 나타난 ‘MAR DEL ZUR’가 대표적이다.

제작연대가 17세기 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139점(식별 불가인 7점 제외)으로 동해에 지명 표기를 하지 않은 지도가 82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시기 눈에 띄는 점은 안소니우스가 1658년 제작한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NSUILARUM ADJACENTIUM

M)와 같이 ‘중국해’를 표기한 지도가 20점이었다. 이는 ‘동양’이라는 막연한 표기에서 ‘중국양’ 또는 ‘중국해’ 등으로 구체적인 지명 표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프랑스의 타베르니에(Jean-Baptiste Tavernier)가 1679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인 〈Carte Des Isles Du Japon〉에서와 같이 대한해협에 ‘한국해(Mer de Coreer)’가 등장하였으며 존 세넥스(John Senex)가 1700년에 제작한 〈ASIA〉에는 ‘동해’(The Eastern)와 ‘한국해’(Corea Sea)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총 8점이었다.

제작연대가 18세기 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171점(식별 불가인 5점 제외)으로 그 가운데 72점이 동해에 한국해 표기를 하였다. 한국해 표기 중에서도 ‘Mer de Corée’이 38점으로 G. De Lisle가 1705년에 제작한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을 기점으로 18세기에 대표적인 동해 지명 표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작연대가 18세기 후반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280점으로 그 가운데 한국해 표기 유형이 160점으로 나타났다. S. Janvier는 1760년에 제작한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에 ‘Mer de Corée’로, J. Gibson은 1753년에 제작한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에서 ‘Sea of Corea’로 표기하였다.

제작연대가 19세기인 서양의 고지도는 총 227점으로 그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지도 가운데는 동해 지명 표기가 4점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라페루즈 탐사 이후 동해가 일본해 표기로 바뀌었고, 동해는 지금의 동중국해 표기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서양 고지도의 동해 지명 등과 같은 연구는 특정 국가에 소재한 대학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적으면 100여점에서 많아도 수백여점에 불과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국가 및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제작한 서양 고지도 900점을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인 제작 연대 구분에 따라서 서양 고지도에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을 고찰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도 제작자에 따른, 혹은 지도 제작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나타나는 동해 관련 지명의 유형과 변천 등에 대한 연구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상근, 2004, 세계지도의 역사와 한반도의 발견, 살림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한상복,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

## 2. 논문

- 김기혁·임종욱, 2008, “지리학에서 지명연구 동향”,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푸른길, pp. 15~32.  
노정식, 1975, “서양지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윤곽변천에 관한 연구”, 대구교대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대구교육대학교, pp. 233~246.  
\_\_\_\_\_, 1993, “고지도상에 나타난 동해(일본해) 지명 연구”, 논문집 제28집, 대구교육대학교, pp. 259~279.  
서정철, 1981, “역사적으로 본 서구고지도에 나타난 한국”, 지리학 제24호, 대한지리학회, pp. 39~53.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pp. 263~281.  
\_\_\_\_\_,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89~111.  
\_\_\_\_\_, 2004, “과학과 예술의 만남, 한국의 옛지도 읽기”, 측량, 대한측

- 량협회, pp. 42~47.
- 오일환·김기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형태와 명칭표기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6  
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113~122.
- 오일환, 2004, “서양고지도의 ‘동해(東海, Sea of Korea)’ 표기와 유형  
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pp. 167~186.
- \_\_\_\_\_, 2009,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지리인식과 그 양상”, 세계  
지도 속의 동아시아(고지도국제학술대회 발표집), 경기도·경희대  
학교·동북아역사재단, pp. 157~183.
-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  
한지리학회, pp. 278~283.
- \_\_\_\_\_, 2008, “‘동해(東海)’ 지리 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지명의 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편, 푸른길, pp.  
307~334.
- 이상태, 2003,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우리나라 국호”, 역사비평 통권  
65호, 역사문제연구소, pp. 372~391.
- \_\_\_\_\_,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東海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  
지리 제16권 제1호, 문화역사지리학회, pp. 157~164.
- 이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  
지리학회, pp. 263~267.
-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지리학 제27권 제  
3호, 대한지리학회, pp. 268~271.
-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 272~277.

### 3. 연구보고서

국토지리정보원, 2007, 외국고지도에 표현된 우리나라 지도 변천과정 연구  
보고서

### 4. 웹사이트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http://oldmaps.khu.ac.kr>)

레이맵스(<http://www.raremaps.com>)

파인드코리아(<http://www.findkorea.co.kr>)

# ABSTRACT

## Naming ‘East Sea’ on Western Old Maps

Kim Min-hee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o-kyung)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types and changes of the geographical names related to the ‘East Sea’ seen on western old maps according to the time series that those maps were made. Through such an analysis, it is possible to consider how the geographical awareness of the East Sea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years when the western old maps were made in a time series manner. One of the way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uch study is to analyze a number of diverse maps without sticking to a certain country, a certain year or a certain place those maps were made or kept, so the present study selected 900 items out of nearly 4,000 maps whose images are provided by the FindKorea web site and analyzed those over a period from the 16th to 19th century.

As a result, 33 items of the western old maps made in the 16th century were found. Among those, the maps marked with geographical names of the East Sea were analyzed to find one map with the Ocean Oriental and three with the Mare Cin. The Ocean Oriental is found in <ROYAUME DU IAPON> (1600), and the Mare Cin on <Indiae Orientalis Insvlarvmqve Adiacentivm Typvs> (1570).

The number of western old maps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was a total of 60 items(excluding 4 unidentifiable ones). 37 items among those maps do not mark any geographical names of the East Sea, which case outnumbered the others, but as a detailed concept of the 'Ocean Oriental,' 11 maps were found to spell 'The Chinian Ocean' or the 'Mer de la Chine' . In addition, three maps mark the East Sea with the Pacific Ocean or a part of it as in the 'MAR DEL ZUR' on <Asiae Nova Descriptio Auctore Jodoco Hondio> made by Jodocus Hondius in 1623.

A total of 139 items of old Western maps made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were found excluding 7 unidentifiable ones, among which 82 items did not mark any geographical names of the East Sea. One thing, however, noticeable about this time is that 20 maps are marked with the 'Mare Cin' as in <NOVA ET ACCVRATA IAPONIAE TERRAE ESONIS ACNSUIALARUM ADJACENTIUM> made by Ioannes Ianssonius in 1658. That means specific geographical names like the 'Chinian Ocean' or the 'Mare Cin' were marked, not the vague marking as the 'Oriental' . Also, as seen on the map of Japan named <Carte Des Isles Du Japon> made by Jean-Baptiste Tavernier in France in 1679, the 'Mer de Coreer' appeared in the Korea Strait for the first

time, and the <ASIA> made by John Senex in 1700 marks it with the ‘ East Sea’ (The Eastern) and the ‘Corea Sea’ . The number of such type of maps is 8.

A total of 171 items of old Western maps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were found excluding 5 unidentifiable ones, among which 72 items mark the East Sea with the ‘Corea Sea’ . Among those marked with the ‘Corea Sea’ , 38 items use the ‘Mer de Corée’ , which appears as the typical geographical name for the East Sea in the 18th century starting with the <Carte Des Indes et De La Chine> made by G. De Lisle in 1705.

A total of 280 items of old Western maps made in the 18th century were found and among those 180 items mark the East Sea with the ‘Corea Sea’ . In 1760, S. Janvier made <L’Asie divisee en ses principaux etat> which marks the East Sea with the ‘Mer de Corée’ , and in 1753 J. Gibson made <Tabula geographica partis septentrionalis Maris Pacifici> which marks the East Sea with the ‘Sea of Corea’ .

Particularly,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only 4 items mark it with the East Sea,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exploration into the La Pérouse Strait that has caused the East Sea to be marked with the Sea of Japan. Besides, the East Sea tends to be replaced with the East China Sea now.